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5일 화요일 음 12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8℃, 낮 최고기온은 12-13℃로 전망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 가능지수 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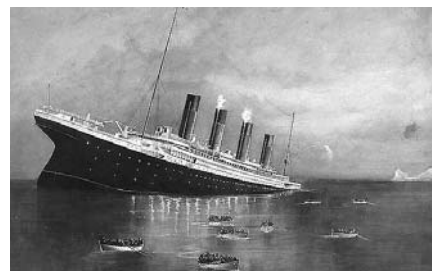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6/10℃ 모레 흐림 4/8℃

월드뉴스

“어린이·여성 먼저 대피는 과장됐다”

타이태닉호 침몰 당시 이야기

1912년 4월 타이태닉호 침몰 당시 남자들이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대피시켰다는 이야기는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침몰하는 타이태닉호.

이 이야기가 많다면 이렇게 밝혔다. 베타홀름은 당시 여자와 어린이를 구명정에 먼저 태우라는 선장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관련 전문가이자 작가인 클라레스-고란 베타홀름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 난파선 전시회와 관련해 '더 매일 온 선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마지막 구명정을 타고 살아난 이들 가운데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출신으로 이번 전시회 큐레이터인 그는 케이트 윈즐릿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주연한 블록버스터 영화 '타이태닉' 덕분에 세계인들이 110년 전 사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할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이등 항해사 찰스 라이틀러는 여자와 어린이를 먼저 태우라는 선장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라 65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에 고작 28명만 태우고 남자들을 배에 둔 채 떠났다.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법학박사

얼마 전 한 지인이 유튜브에서 보수와 진보 채널을 일부러 번갈아 검색한다고 했다. 한쪽 채널만을 검색하면 다른 쪽 채널의 정보는 필터링 돼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한 나름의 조치라는 이야기였다.

세뇌된 사회

상의 공간을 이루며 우리 삶의 내밀한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은 뉴스 콘텐츠와 결합해 '필터 버블' 현상을 극대화한다. '필터 버블'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필터 버블' 투명성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이 이용자들의 가치관이나 취향을 조종 못 하도록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려는 선택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광고와 연결된 핀테크 기업의 이윤의 문제와 정보 선택의 편리성을 기업에 의존한 소비자의 문제가 결합해 알고리즘은 권력이 됐다.

열린마당

2022 제주 국제교류의 의미



이한준 제주도 평화대외협력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세계의 리더로 복귀하겠다는 포부와 달리 코로나에 인플레이션, 미밋한 외교성과로 지지율은 최저다.

전 세계가 팬데믹을 맞이한지 3년 차, 그 어느 때보다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의 절실한 때다. 국제교류가 국가의 영역에서만 한정 지던 시대는 가고 전통적 의미의 외교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류활동을 지속했다. 자매도시 결연 n차년 기념행사로 우호협력을 다졌고, 평화도시 간 연대를 구축했으며 COP26에서 제주의 탄소중립정책을 알리는 한해였다.

국제교류는 다양한 주체들이 국가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협력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국가간 분쟁은 있을지언정 국제교류는 연속성을 바탕으로 지속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호간 정책을 공유하며 우호증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국제교류의 의미일 것이다.

겨울철 농업용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팁



강성민 제주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경과

사계절 식탁 위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놓여 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 추운 겨울철 온도를 높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석유 연료를 태워서 온풍난방기를 가동해 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재는 연간 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난방기 과부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절반 정도인 40-5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화재 경보시스템, 소화기, 유류차단장치, CCTV 등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범농가들의 니즈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급년에는 보다 진보된 시범요인을 투입해 시설하우스 화재 시 초기진화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름철 태풍, 낙뢰 등 정전 시에도 자동개폐기가 작동돼 고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농업인 거주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당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한 후 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조상윤.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감귤 신제품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신품중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탕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원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종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원터프린스,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하례조생, 미니향, 레몬, 탐라향 5년생(화분), 궁천, 일남일호, 유라(1~5년생), 천전(가와다) 조생. * 신제품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제품]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진부리 형성과 뿌리생성 방지, 미수익시간 단축,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천혜향/레드향/황금향/카라향/궁천 유라조생/홍진/하굴/금굴/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탐나는봉/하례조생 사리향/제라몬/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장원농장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육묘장-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육묘장-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